

하반기 대기업 공채 16% ↑...평균 초임 3920만원

잡코리아 조사 ... 155개사 대졸 2만389명 채용

기계·철강·조선·중공업은 3분의 2가 계획 없어

블라인드 채용 도입 등 채용환경 변화에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상당수가 아직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채용을 확정된 기업들이 지난 해 하반기와 비교해 채용규모를 늘릴 계획이어서 일자리는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22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4년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을 확정된 곳은 155개로 전체의 37.4%에 그쳤다.

대졸 신입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0.2%(125개)였고, 나머지 32.4%(134개)는 아직 채용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같은 조사에서 응답 기업 246개 가운데 '대졸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힌 곳이 전체의 54.7%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식음료·외식 관련 기업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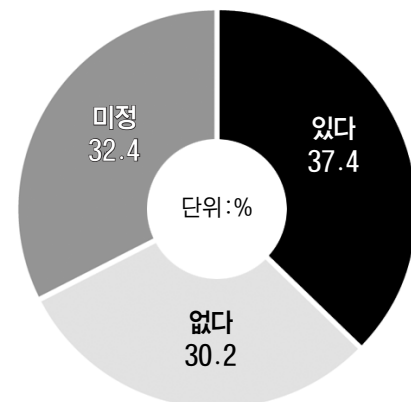
운데 66.7%가 대졸 공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기계·철강과 구조조정 여파를 겪고 있는 기계·철강업과 조선·중공업은 각각 3분의 2가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채용규모는 지난 해보다 커질 전망이다. 특히 잡코리아가 분석한 2017년 하반기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을 진행하는 155개 기업의 채용인원은 총 2만389명으로 한 기업당 평균 131명의 신규 인력을 총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 1만7491명보다 16.6%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에 조사된 기업 중 올 하반기 대졸 정규 신입직 인력 채용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전기전자업종으로 총 6025명의 신규 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동차운수(3030명), 식음료·외식(1940명), 유통·무역(1920명), 금융(1909

■ 2017하반기 대기업 대졸 신입공채 여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414개사 대상조사 결과, 자료제공:잡코리아

명, 공기업(1706명), 제조(1681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대졸 신입직 공채시기는 9월에 진행되는 기업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이미 8월에 진행한 기업도 14.8%로 나타났다. 10월이 12.3%로 뒤를 이었으며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6.1%로 높은 편이었다.

한편 올 하반기 대기업 대졸 신입직 평균 연봉은 3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

■ 하반기 대기업 대졸 초임 평균 3920만원

조선중공업	4383
기계철강	4173
금융	4143
건설	4098
석유화학	4015
IT/정보통신	4014
제조업	3835
유통무역	3751
전기전자	3729
자동차	3704
서비스업	3700
식음료외식	3489만원

별로는 ▲IT·정보통신 4014만원 ▲조선중공업 4383만원 ▲기계철강 4173만원 ▲금융 4143만원 ▲건설 4098만원 ▲석유화학 4015만원 등이 대졸 초임 수준 4000만원대를 넘겼다.

이외에도 ▲제조업 3835만원 ▲유통무역 3751만원 ▲전기 전자 3729만원 ▲자동차 3704만원 ▲기타 서비스업 3700만원 ▲식음료 외식 3489만원 순이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채권단회의 연기

더블스타 “매각가 낮춰달라”

상표권 사용 조건 반영 쟁점

금호타이어의 매각가격 인하 여부를 논의할 주주협의회가 하루 연기된 가운데 상표권 사용조건을 새로운 주식매매계약(SPA)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계자는 22일 “더블스타와 협의할 게 남아 있어 주주협의회를 내일로 연기했다”며 “내일로 하기로 했지만 또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협의회에서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요구한 금호타이어 매각가격 인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더블스타는 최근 금호타이어의 실적이 약속한 것보다 더 나빠졌으며 매각가격을 종전 955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16.2%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 후 각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산업은행에 보내 가격 인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의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 더블스타와 다시 SPA를 체결해야 한다.

이때 상표권 사용조건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에는 상표권의 사용 요율은 매출액의 0.2%, 사용 기간은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이었으나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표권 사용조건을 두고 협상을 벌인 끝에 박 회장이 제시한 안인 ‘사용 요율 0.5%, 사용 기간 20년’으로 결론이 났다.

단, 채권단이 당초 더블스타가 요구했던 요율과의 차이를 금호타이어에 보전해줄기로 해 보전금액은 최대 2700억원이 된다. 협상 후 사용조건으로 변경 SPA를 체결하면 채권단은 매각가격을 1550억원 깎아주고 추가로 2700억원을 추가로 약속한 셈이 된다.

결국 채권단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5300억원으로 줄어들어 ‘할값 매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또 더블스타가 처음 요구했던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 5+15년’으로 하면 박 회장 측이 반발할 수 있다.

지난 2개월 이상 진통 끝에 잠정 결론을 본 상표권 사용협상을 재차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새로 체결되는 SPA에 상표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어떤 식으로 하든 어느 한쪽에서 반발할 소지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국제식품전 참가

농공상업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행)은 광주시가 주최하는 '2017 광주국제식품전'에 참가할 농공상업체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국제식품전은 광주시 주최로 오는 11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다.

광주전남지방청은 행사장에 중소기업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관'을 설치하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 등을 열 예정이다.

참가업체에는 부스 임차비와 장치비 등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오는 9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햇사과 ‘아오리’ 나왔어요”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임훈)는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햇사과 ‘아오리’(4개 7900원)를 선보인다. 사과품종 중 가장 일찍 출하되는 아오리 사과는 식감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광주신세계 제공)

삼성전자 IoT·AI 스마트홈 시대 본격화

내달 독일 IFA서 음성인식 사용자 경험 혁신 소개

삼성전자가 IoT·AI 기반 스마트홈 시대를 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9월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 2017에서 음성인식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경

험 혁신 등 주요 서비스들을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모든 가전 제품에 스마트 기능을 탑재해 연결성을 확대하고, 개별 스마트 가전의 사용자 경험

을 강화해 기간간 또는 서비스 연동이 주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패밀러리브 냉장고는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음성인식 기반의 AI를 적용해 주방 공간에 최적화된 허브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됐다. 음성을 통해 필요한 레시피를 찾아 요리하고 필요한 식자재를 주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집안에 있는 여러 제품을 연결해 음성만으로도 제어할 수

있도록 진화할 예정이다. 가령 이용자가 로봇 청소기를 주방에 불러 청소를 시키거나, 요리를 하면서도 추천 세탁코스를 안내 받아 세탁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스마트싱즈와 연동 가능한 약 130개의 제품이 제어 가능하며(미국 기준) 향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복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복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급 매”

리조트 콘도/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바리오 화순에’
-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 상담문의 H. 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